

社 說

지역과 동행해 성장하는 공공 인프라의 소명에 최선

창사 34주년에 부쳐

정론직필(正論直筆)을 기치로 삼은 광주·전남 대표 언론 광주매일신문 창사 34주년이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본보는 민주주의와 호남 역사의 산증인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 앞으로 바른 주장을 펼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다짐한다.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행하는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기울일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약속한다. 언론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새기고자 한다. 변함없는 애독자들의 성원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공정과 상식, 원칙에 반하는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에는 가까이 동참하겠다. 지역발전과 공익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힘든 여정이더라도 신뢰를 주는 참언론으로 거듭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

정말로 펜은 갈보다 강했다. 믿을 수 없는 12·3 비상계엄,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밀거름이 됐다. 광주는 45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며 분노했지만 찬란한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밤을 물리쳤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대한민국을 배반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다. 추위가 떠나지 않았던 광장에서 시민들과 보듬고 어우러졌다.

계엄령 선포 순간의 일이다. MZ세대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으로 긴박한 국회 모습을 실시간 전파하며 재빠르게 움직였다. 제재 결의안 통과와 무장 군대의 철수를 거쳐 불법적 상황 종료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 철저한 언론 통제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자 했던 전두환 신군부 당시와는 너무 달라져 있었다.

한편으론 새삼 종이신문의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연이어 발행된 호외(號外)가 주목을 끈 것이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뜻한다.

실제로 5·18민주광장 일대에 배부된 호외에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너나없이 집어들고 환호했다. 가족과 지인에게 나눠주겠다고 더 챙기기도 했다. 속보성으로 기사를 접하고 셀 수 없이 많아진 디지털 중심의 다매체 구조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오래도록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어서다.

6개월 전 내란의 밤 이후로 광주매일신문 또한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파하는 사명, 책임에 충신했다.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2025년 4월4일 ‘윤석열 파문’,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다. 앞서 신년 특집도 ‘불확실성 견어내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라’는 기획을 선보였다.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종이신문은 영원할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이다. 정권 교체의 강렬한 염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기갈기 찢긴 국론을 통합하는 것도, 내수 침체에서 비롯된 붕괴 직전의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것도, 자국 우선주의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외교·안보 상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까지 한마디로 총체적이다. 윤석열 정권 실정으로 인한 대가 치곤 가혹하다.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지방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소멸이 눈 앞에 닥치고 있다. 광주·전남은 더 열악하다. 새 정부에서 팔 걷고 지원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닌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사업이 적지 않은데도 걸들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방언론에도 막중한 과업이 부여됐다.

광주·전남 최대 상생 과제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이 꼽힌다. 애초에 국가가 책임지는 국책사업으로 주체적으로 챙겼다면 장기간 표류하지 않았을 터였다. 광주시가 기피시설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고, 무안군도 지역 이기로 결사 반대만 한다는 비난을 살 이유가 없었다. 동북아 대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무안국제공항의 도약을 서둘러야 한다.

이 대통령은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가데이터센터가 설립 운영 중이며, 수많은 기업이 투자

하고, 사관학교를 통해 인재 양성 사다리도 만들어져 생태계가 이미 완성됐다. 초거대 AI컴퓨팅센터 유치 등으로 실증밸리 구축을 위한 2단계가 가시권에 들었다.

전남의 역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허브로의 도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틀을 닦았으나 지난 3년 간 원전 정책에 떠밀려 담보였던 만큼 가속도를 붙여야 하는 것이다. 대선 공약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기본소득’ 등이 여러번 언급된 만큼 곧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2027학년도 개교 일정에 맞춰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지역신문은 구독자 감소, 광고시장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지만 기회는 열려 있다.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공적 정보 전달이라는 기본 미디어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공론장의 해체는 민주주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회복력을 기대한다.

전혀 예기치 못한 헌정질서의 붕괴 사태를 막고 본보 또한 새로운 정치 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힘쓰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관세 정책과 계엄령으로 파생된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대안 모색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중이다.

지금 정치권에선 지방소멸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시대, 지역신문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는 지역 문화 보존과 소멸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 등을 담았다. 정부가 매년 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극우세력의 편 가르기는 심화되고 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도 활개치고 있다. 혼란은 점차 수습되고 있지만 아직은 멀었다. 지난 정권 임기 내내 언론 장악 시도가 이어졌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 없이 불통과 탄압으로 혐오와 차별을 양산했다. 계엄 포고령을 통해 악랄한 통제를 기도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엔 기자들이 집단폭행을 당했다.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지방언론 또한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해서 소셜미디어의 폐해를 경계하며 신문사의 가치에 주목하는 최근의 흐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본보는 뉴 미디어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 세상을 바로 보고 속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균형잡힌 콘텐츠를 생산할 것이다. 진실을 탐구하며, 정확하게 기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고자 한다. 디지털 융복합의 선도 주자로서 새 지평을 확장할 것이다. 호남의 대표 정론지의 위상을 더 탄탄히 하겠다고 재차 약속드린다.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를 가슴에 품고 정진할 것이다.

시 론



김 미 남
前 청와대 행정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3년3개월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한 이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과 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기간 중 광주·전남 발전의 핵심 공약으로 총 14개를 제시했다. 광주와 전남은 모두 공약 7개를 각각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광주 7대 공약을 살펴보자. AI국가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국가 초고자기장연구 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이다.

다음은 전남의 7대 공약이다. 공공의대 설립, 여수석유화학 대전환,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신재생에너지 허브 미래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대표 관문공항 육성·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등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두 지역 최대 현안인 점을 감안해 광주와 전남의 공통 공약

새 정부 호남 공약 득표율 84.43% 이상 완성해야

으로 채택됐다. 광주의 공약 1호는 AI국가시범도시, 전남은 의대 설립이다.

전북 7대 공약은 2008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K-컬처 메카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SOC 조기 완성,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공공의대 신설, 사통팔달 교통·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등이다.

호남은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84.43%(광주 84.77·전남 85.87·전북 82.6%)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김문수 후보보다 265만4천300여표 앞선 호남 득표차의 물표가 결정적이었다. 경상도 인구가 호남권(492만)에 비해 753만 여명이나 많은 데도 양 후보의 경상도 지역 표차 200만표보다 더 많고, 3곳(서울·경기·충청권)을 합한 후보 간 격차표 188만표보다 높은 수치다.

호남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압도적 물표를 준 대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와 예산에서 큰 차별을 받았다. 보수정부에서 퇴보한 인사와 예산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민주당도 선거 때마다 호남에 표를 원했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지역민들에게 불만과 안타까움을 남겼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자부하며 일편단심 지지해 왔지만, 현실은 오히려 소외와 정부 정책의 실질적 이익 면에서 손해를 봤다는 견해와 평가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호남이 민주당과 새 정부에 요구하고, 노력해야 할 방안으로 첫째, 광주시와 전남·북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채택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시·도에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 본청(전담 팀)과 중앙(서울 파견 팀)은 해당기간 동안 국정과제 채택 노력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추진과 진척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에 호남 예산 복원과 인재 등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뒤쳐진 인사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지역 안배를 감안한 균형 있는 인사와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 무늬만인 아닌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급과 정부 부처의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급 등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권이 있는 핵심 보직자리에 호남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시·도) 공무원들의 반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실과 중앙 부처 공직자들이 바라보는 전라도와 경상도 공무원들의 평가다. 경상도의 경우 철저한 연구와 사전 준비를 통해 브리핑을 하고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전라도는 사전 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부·국회·정치권을 찾아 읍소만 하는 경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은 인식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늬만 공약으로 끝날 경우 또다시 ‘호남을 도구화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광주 유세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들을 직접 주도하며 챙기겠다고 했다. 단순한 보상과 배려가 아닌 호남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호남은 어려운 고비마다 대선에서 물표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제 민주당도 호남을 지켜야 한다. 핵심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독자투고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뜻깊은 현충일과 6·25기념일이 있는 달이다.

하지만 언제부턴인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야말로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해 국가 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유공자 분들에 보답하는 자세

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이웃에 거주하는 보훈 가족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서도 생계가 곤란한 보훈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

은 더 필요하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추모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을 다지는 뜻 깊은 달이다. 해마다 맞이하지만 나라 사랑의 정신이 날날이 희미해져가는 지금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김덕형·장성경찰서 경무계장〉

〈새 시대를 여는 축시〉

다시 대한민국

-지금 당신의 시간

서재환 (시조시인·아동문학가)



밝혀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일어서고
당신은 절정이여
오천년 오뚝이여
밝히고 넘어질지언정
꺼이잡는 대나무여

질긴 근육 고래심줄
오천만이 하나 되면
달인들 못따올까
지구인들 못굴릴까
휴전선 단단한 빗장도
한순간에 열리리

나서면 길 열리고
손 뻗치면 별잡히는
육대주 온 눈길이

당신께 물리고 있는
지금 당신의 시간
치는 쪽쪽 울리라

눈 감고 귀를 열면
지구촌 곳곳에서
정소리 뺨과리 소리
날라리와 오색풍선
신명난 열두발 상모
회오리가 굵이친다

당신은 이제부터
개벽세상 중심되어
길 잃고 병든 인류
길잡잡이 되리라
못별이 해를 향하듯
거기 우뚝 서리라.

【약력】

전남 담양출생
원광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
동아일보신춘문에 시조 당선(1988)
동아일보신춘문에 동시 당선(1997)
한국아동문학상, 우리나라 좋은 동시문학상
작품집 ‘만약에 말이야’, ‘산이 울음울음’ 외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